

가정 예배 모범

- 2022_03_20_장기중앙교회

매일성경 3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

▶ 함께 함께 기도 (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)

=>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.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.

▶ 함께 찬양 (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)

=>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

▶ 함께 읽기 (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)

=> 레위기 13장 1-17절

▶ 함께 묵상 (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)

1) 피부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?(2절, 9절)

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점이나 뾰루지, 색점이 피부에 생겼을 때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. 당시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피부병 관련 진찰과 정결의식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.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병에 걸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에 관한 내용을 명령하심으로 제사장이 환자를 진찰하게 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였습니다.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말, 모함 등 악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오염시킬만한 위협을 발견하였다면,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.

2) 제사장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내릴 수 있는 진단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?(3절, 6-8절, 11-13절)

제사장에게 찾아온 환자의 증상을 보고, 제사장이 내릴 수 있는 진단은 (1) 정결하다, (2) 부정하다입니다. 제사장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개인의 의견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에 따라 진단합니다. 그리고 진단 후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시행합니다. 만약 제사장에게 찾아온 환자가 '부정하다'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환자는 공동체에서 즉시 격리되고, 피부병이 다 나은 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. 부정함을 진단받은 단 한명의 환자이지만 이 한명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혹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. 나의 욕심, 나의 부정함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

▶ 함께 나눔 (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)

▶ 주기도문 (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)